

[신년부흥집회] 생수의 강

[본문 : 겔 47 : 1 ~ 12]

하용조 목사 / 2000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땅의 성전은 지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품입니다. 땅의 성전은 치수를 재고 물두멍과 제단을 만들어야 하지만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은 완성품입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생명수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썩은 바다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는 일이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47장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 성전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이라는 의미는 성전의 회복이며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에스겔서 43장4절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37~8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고 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

장 1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던동산과 같고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지만 성전에서 흘러 나오고 하늘에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을 사막이라고 하고 황무지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천지창조를 할 때 '물과 물을 나누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가성여인에게도 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생명수의 물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넘쳐서 성전밖으로 흘러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안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흘러 넘칩니다. 쥐어 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가,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 척을 척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어떤 사람이 손에 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 자로 척량을 합니다. 척량을 하면 물이 불어납니다. 물이 스며나오고 있다는 말은 성령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스며들던 물이 불어나서 발목까지 오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일천 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홍수가 나듯이 성령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천 척을 척량할 때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성전의 모든 크기를 자세히 척량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성전을 자세히 잴다는 의미는 성전을 자세히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 내부의 비밀한 부분까지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척량될수록 물이 불어납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늘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전을 재보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에는 넓이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것,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넓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아는 것,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은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깊이입니다. 신앙의 넓이는 힘이 없고 깊이가 힘이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땅에 스며들었다가 발목까지 오고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이것은 성령체험과 동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차도 성령충만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라까지 차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물이 창일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시 일천 척을 척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물을 건너는 것 보다 물에 빠지는 것이 더 자유합니다. 성령을 조종하는 것보다 성령 안에 빠지면 자유합니다.

성령의 강물에 빠지라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충분히 빠지는 단계,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단계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역의 절정은 자유함입니다. 사역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유해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만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발목에 온 정도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유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설림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까지 갔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만 무성해집니다. 6~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찌라

물이 죽음의 바다를 흘러 갑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서 죽음의 바다를 살립니다. 그것은 겨우 물을 건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덮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때에 여러분의 사역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흘러 넘치는 부활과 기적과 생명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휩쓸려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인간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 나무들이 살고 고기들이 살고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손을 펼때마다 그것은 고기를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1~12절을 보십시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강이 각종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실과를 만들어내고 1년 12달 동안 새로운 실과를 맺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그 잎을 먹는 자마다 병이 낫는 기적과 은총이 넘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안에서 넘치는 생명, 교회에서 넘치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역과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 기대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꺾대를 향해 계속 전진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이 나올 것이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새 해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올 한 해가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